

저공해 잉크 “인기상승”

H/S용 · 매엽용 잉크, 저공해 잉크로 대체 … 미국 · 유럽 수출제품도

저공해성 잉크의 수요가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환경오염규제의 심화에 따라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.

관련업체에 따르면 윤전 H/S용(Web Heat Set) 잉크는 현재 100% 저공해성 잉크로 대체되었고, 또 매엽용(Sheet Fed) 옵셋잉크는 현 잉크사용량의 1/4 정도가 저공해성 잉크로 대체되어 향후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특히 미국 · 유럽 등지로 수출되는 잉크는 거의 전량 저공해성 잉크로 알려졌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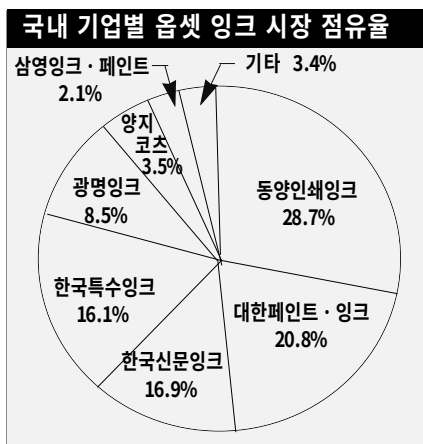
저공해성 잉크란 과거 광물성 안료를 사용, 잉크를 제조했으나, 공기름 · 들기름 등 식용유를 사용해 휘발성 유기물(V.O.C.: Volatile Organic Compound)을 최소화하고 냄새를 줄인 잉크를 말한다.

과거에도 공기름 등을 사용했으나, 반건성유이기 때문에 쉽게 마르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.

어린이용 책, 식품포장지 등의 인쇄에 쓰이는 잉크는 저공해성 잉크만 사용해야 하며 저공해성 잉크에 사용되는 공기름은 전량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인쇄잉크 시장은 총 1500억원 규모로 이 중 옵셋 450~500억원, 윤전(신문잉크 포함) 250억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매엽 및 윤전을 합한 옵셋잉크의 각 기업별 시장점유율



은 동양인쇄잉크 28.7%, 대한페인트 · 잉크 20.8%, 한국신문잉크 16.9%, 한국특수잉크 16.1%, 광명잉크 8.5%, 양지코츠 3.5%, 삼영잉크 · 페인트 2.1%, 기타 3.4%의 순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1993/9/20>